

ICAPP 2013 및 제28회 원자력연차대회 개최
24개국 700여명 참석, 총 276편의 기술 논문 발표



ICAPP 2013 및 제2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식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정연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및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공동 주최로 원자력산업 국제회의의(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인 ICAPP 2013 및 제28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IF/KNS Annual Conference)가 2013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486명과 국외 205명 등 세계 24개국에서 69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원자력-미래 녹색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선택(Nuclear Power-A Safe and Sustainable Choice for Green Future)」의 대회 주제(Conference Theme)하에 5개 Plenary Session에서 10개국 24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기술 세션에서는 포스터 세션을 포함하여 11개 트랙 58개 세션에서 국내 137편, 국외 139편 등 총 276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4월 15일(월) 오전에 개최된 개회 세션에서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샌드 아트(Sand Art)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주최 기관을 대표하여 정연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과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연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인해 최근 세계 원자력산업계는 격랑의 시간 속에 있었으며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자력이 없어서는 안 될 녹색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과 일관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13 원자력산업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커팅

고 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높은 경제 효율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자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원자력계의 공동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가 세계 원자력계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개회식 후에는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Agneta Rising 세계원자력협회(WNA) 이사장, Mohamed Hammadi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 Amir Shahkarami, 미국 Exelon Nuclear Partner 사장, Takuya Hattori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이사장 등 국내외 초청연사 5인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ICAPP2013 공동대회위원장이자 KAIF 부회장인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국의 원자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지난 40년간 계속된 원전 건설로 설계에서부터 제작, 건설, 운영 및 정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공급망이 잘 갖춰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도입 과정과 한국표준형 원전인 OPR1000의 개발 과정, 그리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APR1400, 현재 개발중인 APR+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의 성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지난 40년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그 동안의 설계 능력 향상, 기기 제작 경험 축적, 그리고 인력 양성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었으며, 오늘날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밑거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처럼 한국 원전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원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자아냈으며,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성과를 내면서 생겨난 자만심과 과거의 관료주의적 경영 방식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김 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의 전환, 안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투명성을 전제로 대중과의 소통 등 다양한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대회와 병행하여 「2013 원자력산업 전시회(Nuclear Industry Exhibition)」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전시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주), (재)포항테크노파크, (주)에이치엔에너지, 노렘스(주), WH(미국), AREVA(프랑스), TOSHIBA(일본), ATOMEXPO(러시아), T?V S?D(독일), BENTLEY(아일랜드) 등 7개국에서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29개 전시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원전 설비 기자재, 유지 보수 계측 기기, 원전 IT 관련 기술, 방사성폐기물 관련 제염 차폐 기술, 증기 발생 장치 관련 기술 등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제1기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강연



강연을 하고 있는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강연회에 참석한 원자력계 주요 인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 5월 2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171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태성은 한전KPS(주) 사장,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강건기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기술과장 등 원자력 관련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찬강연회에서 최영명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은 「한국의 핵비확산, 핵안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영명 원장은 강연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 체제, 핵안보 체제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이행 결과를 소개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핵비확산, 핵안보 개념 확산에 쏟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이를 통해 우리의 핵주기 권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8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가 공동 주최한 2013년 제8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및 원자력시설 시찰이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샬롱(Chalon), 카다라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참석 주요 인사



Tricastin PWR 원전 방문

슈(Cadarache), 마르세이유(Marseille) 등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원산의 이종진 상근부회장(대표단장)을 비롯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총 11명이 참가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노보텔 파리 에펠 타워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측에서 4편, 프랑스 측에서 6편 등 총 10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의 일환으로 프랑스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산업 시찰도 시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AREVA Chalon/St-Marcel 원자력기 제작공장, 프랑스전력공사(EDF), Tricastin PWR 원자력발전소, AREVA Eurodif 가스확산 농축공장(George Besse - I), 원심분리 농축공장(George Besse - II), 프랑스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이 운영하는 Cadarache 원자력·핵융합 연구 시설, ONET 테크놀로지(원전 유지 보수 회사) 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 스테디와 함께 현지 전문가들과의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였다.

제1회 동아시아원자력발전포럼 참석



동아시아원자력발전포럼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동아시아원자력발전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 인사

제1회 동아시아 원자력발전포럼이 2013년 4월 26일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주최로 도쿄 소재 도카이대학교 구락부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4개국에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원자력 추진 전망과 원자력 안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미래 방향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과 김형택 한수원 중앙연구원 중대사고그룹장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2013년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상반기 총회 참석



PNC 총회. 장호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정보협력실장과 정성엽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태평양 연안국가 간의 지역 협력 기구로 1988년 창설된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의 2013년도 상반기 총회가 지난 4월 23일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도쿄 사무소 회의실에서 Atsuyuki Suzuki PNC 회장(일본 JAEA 이사장)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PNC 상반기 총회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에서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PNC 회원 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측 참석자로 장호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정보협력실장과 정성엽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PNC 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PNC 사무국 업무 및 재무 보고, PNC 산하 분과위원회(committee) 및 전문그룹(Working & Task groups)의 연구 활동, PNC 회원 영입 확대 활동, 국제 NGO로서 PNC 회장단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활동, 차기 2014년 캐나다 밴쿠버 PBNC 대회(19차) 준비를 프로그램 구성 협의, 2016년 PBNC 대회(20차) 개최국 선정 등에 대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다.

제46회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연차대회 참가



JAIF 연차대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일행.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영남대, 부산대 등 7개 기관에서 17명이 참가하였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주최하는 제46회 연차대회(Annual Conference)가 2013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소망회관(Nissho Hall)에서 개최되었다.

「원자력 제로? -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일본의 책무」라는 대회 주제하에 「적절한 에너지믹스의 전망-일본의 선택」, 「신뢰 구축-세계와 함께 생각하는 원자력 안전 향상」, 「회복으로 가는 길-세계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 3개 Plenary Session으로 구성된 이번 JAIF 연차대회에는 일본 국내에서 500여명, 국외 27개국에서 100여명 등 총 28개국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7개 기관에서 17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원산-서울대 원자핵공학과 MOU 체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학과장 주한규 교수)는 5월 27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실에서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하는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매년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하계강좌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양 기관 간 협약한 것으로, 국내 원자력 주요 기관 CEO를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기관별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원자력계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금년도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는 7월 8일(월)~10일(수) 일정으로 서울대 교내 세미나장에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현안 사항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MOU를 체결한 이종진 한국원산 상근부회장(사진 오른쪽)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학과장)

현대건설, 삼성물산대상 원전 시공 품질 관리 및 사업 관리 향상 원자력교육 시행



삼성물산 교육



현대건설 교육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현대건설(주)과 삼성물산(주) 등 국내 원전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과정을 각각 4주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일정으로는 이론 교육과 건설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삼성물산(주) 신입직원 50명에 대한 원자력교육은 4월 25일부터 4주간 동안 한국원산 원자력교육장(서초동 소재)에서, 현대건설(주) 신입 및 현직원 등 70명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육은 4월 29일부터 4주간 동안 울진 현장 교육장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한국원산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시공사의 원전 시공 능력 및 품질 관리, 사업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연인원 약 2,000여명에게 원자력교육을 실시하여왔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 타쿠야 핫토리 이사장 방한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의 타쿠야 핫토리 이사장 일행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이종진 상근부회장의



한국의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일본원산 이사장 일행.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복렬 한국 원전수출산업협회 사무국장, 태성은 한전KPS(주) 사장, 타쿠야 핫토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 마사요 핫토리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 부인, 히데오 나카스기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상임고문, 뒷줄 왼쪽부터 장호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정보협력실장, 안호현 대한전기협회 전문위원, 이종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부회장, 박금옥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초청으로 4월 11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핫토리 이사장 일행의 이번 방한은 한·일 양국의 원자력산업계 간 상호 이해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핫토리 이사장 일행은 방문 첫날인 4월 11일 한국원산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이종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시찰단(단장 : 한전KPS(주) 태성은 사장) 등 한국의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을 나누고 양국 원자력산업계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핫토리 이사장 일행은 다음날인 4월 12일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안내로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방문하였다.

2013 원자력인명록 발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신문사는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별 관계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수록한 '2013 원자력인명록'을 발간했다.

2013년도 원자력인명록은 정부기관, 국회, 연구·공공기관, 학회·협회·단체, 대학, 원자력 산업체, 인명색인으로 구분돼 275개 원자력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운데 과장급 이상 8120명에 대한 소속 부서, 직위, 출생년도, 전공분야, 담당업무, 연락처를 명시했다. 또 기관 및 기업의 한글·영문명, 설립 연월일, 소재지, 전화 및 FAX 번호, 웹사이트 등을 수록했다.

수록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정부기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국회 ▲경상북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4개 연구·공공기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 36개 학회·협회·단체 ▲서울대학교 등 23개 대학 ▲한국수력원자력 등 172개 원자력산업체 총 275개다.

* 구입 문의 : 원자력산업회의 정보협력실 권용원 차장 ☎ 02-6257-2583